

회원끼리 관련 지식 공유하는 연구 모임

일본 온라인 정보검색 그룹회(OUG : Online User Group)는 1979년 10월에 설립된 정보검색 이용자 단체로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정보검색에 관심이 있는 회사원과 공무원 등 대부분 연구, 조사 분야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특별히 검색교육을 위한 교사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관련 지식을 다른 회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연구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안계성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과장

연재순서

1. AIIP(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Information Professionals)
2. SCIP(Society of Competitive Intelligence Professionals)
3. OUG(Online User Group)(이번호)
4. EIRENE(The European Information Researchers Network)
5. UKOLUG(United Kingdom Online User Group)
6. EIA(European Information Association)
7. KISEC(Korea Information SEarching Committee)

정보검색사

정보화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오늘날, 일상의 여러가지 활동을 위해 자원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최근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라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정보검색을 위한 기초적 지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만족한 검색을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정보검색사는 특정의 정보요구에 대하여 그 요구에 적합하며 그것을 만족시키는 정보의 소재를 확인해 정보를 입수한 후 요구에 맞는 형태로 적절히 분석·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그 존재와 가치는 이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그 업무에 있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새로운

기능이 요구된 것은 정보원의 비약적인 증대와 이것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급속한 증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정보검색사는 일본에서는 정보검색기술자, 데이터베이스 검색기술자, 서처라고 불리며 그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또는 각종 사례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까지 발표되어 왔다.

그러나 그 현황 인식과 함께 이후 정보환경의 변화를 예측한 정보검색사의 육성을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지식·능력에 적절한 인력양성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OUG 개요

일본 온라인 정보검색 그룹회(OUG : Online User Group)는 1979년 10월에 설립된 정보검색 이용자 단체로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회원의 구성은 정보검색에 관심이 있는 회사원과 공무원 등 대부분이 연구, 조사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히 검색교육을 위한 교사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

한 관련 지식을 다른 회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연구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OUG는 정보과학기술협회(INFOSTA)의 연구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협회로부터 특별히 자금을 비롯한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 사무를 위한 공간 및 사원을 제공받고 있고 이에대한 대가로 협회에 일정의 사무비를 지불하고 있다.

조직 및 활동

OUG의 회원은 유지회원, 특별회원, 보통회원의 약 150여명이 연구회와 분과회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제반 활동상황은 매년 총회 1회, 감사회 4회를 개최하며 연구회와 분과회를 통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연구회는 회원 지식의 향상, 연구의 장 마련을 위해 정보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연4회정도 개최하는데, 보통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을 위한 정보검색 기법 등에 관하여 강의를 하게 된다. 세미나의 내용은 6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간사가 선정하고 매년 3회씩 회원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를 조사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열고 있다.

특히, 각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기법을 설명하거나 시연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열린 연구회에서는 특별강연회 및 NACSIS가 제공하는 시스템의 설명,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검색, 정보의 디지털화와 저작권, 정보검색의 새로운 역할 등 실질적인 주제를 통한 강의를 가졌고, 매년 30-50명 정도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분과회는 상용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식습득, 검색기술 향상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화학분과, 비즈니스분과, 특허분과, 라이프사이언스분과, 서처입문분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분과회는 매년 각 분과당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5-11회 정도의 모임을 가지며 매년 10-2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어, 연구회나 분과회에 참여하지 못한 지방에 위치한 회원이 최근의 연구동향 및 각 분과회

에서 다루었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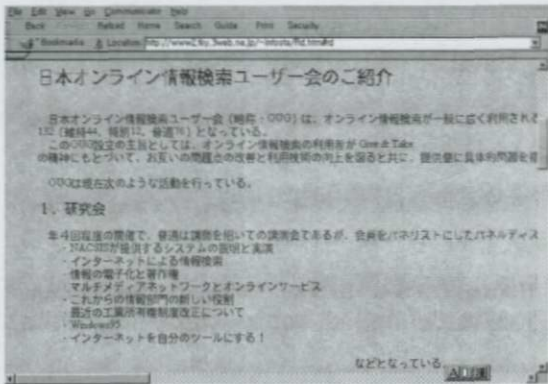
일본에는 OUG이외에 서처그룹(Searcher Group)이 있는데, 이 모임은 데이터베이스 검색기술자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반면, OUG는 정보검색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향후 검색기술자시험에 응시할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는 모임이므로 성격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서처그룹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수는 6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OUG의 회원은 정보검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지회원 및 특별회원의 경우는 정보과학기술협회의 회원으로서 온라인 정보검색에 관심이 있는 기관으로서 회비는 연간 2만엔이고, 보통회원의 경우는 1만 6천엔의 회비를 지불하면 원하는 분과회에서 활동할 수 있고 소식지인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기술자 인정시험과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검색기술자 인정시험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기술자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을 객관적으로 인정, 그 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그 자질 및 지식,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실시하여 1989년에는 과학기술청의 인정을 받았다. 또한 합격자의 모임인 서처회도 탄생했고 합격되면 실력이 공인되므로 주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시험이 실시되기 까지 OUG와 인연을 맺고 있다. 1984년 도큐멘테이션협회(정보과학기술협회 전신)산하인 OUG의 생활과학회의 주사(走査)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받은 영목박도(鈴木博道)씨(국제학정보센터)는 서처의 양성, OUG의 활성화, 협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안을 하였고 당시 OUG의 의장이던 고무용웅(固武龍雄)씨에게 검토를 제안했다. 고무용웅씨는 OUG



OUG의 소개화면

간사회에 이 건을 제안하였으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시기상 빠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OUG 관계 사람들이 이 시험에 대하여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았으나 찬성론도 있었고 자격시험을 실시했으면 하는 의견도 외부에 전달되어 협회의 중촌행웅(中村幸雄)회장이 제반의 정세로부터 협회에서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결단으로 이사회를 통하여 1985년부터 이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OUG의 의장인 고무용웅씨는 데이터베이스 검색기술자인정시험 실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로서 시험실시에 따른 각종 검토를 실시하였다. OUG의 회원중에는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 연구회나 분과회에서 활동을 하기도 한다.

맺는말

일본에서는 정보검색사의 업무가 어느정도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에는 단순히 타자수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고, 기업내에서 정보검색사 육성을 위해 지원 하는 제도가 거의 없었다.

현재도 정보검색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전문가라는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정보검색사가 수행하는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더욱이 요즘에는 인터넷이 일반화 되면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보검색사가 필요하겠느냐는 질문

도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보검색을 담당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OUG와 같은 모임을 통하여 다른 교육기회 및 강습회를 통해서 업무상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통하여 검색기술을 익힌 회원들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단체등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락처: 社團法人 情報科學技術協會

日本 オンライン情報検索ユーザー會

東京都 文京區 小石川 2-5-7

전화: 03-3813-3791 Fax: 03-3813-3793

E-Mail: infosta@tky.threewebnet.or.jp

DB전문인력 양성 교육안내

정보검색 과정(활용과정, 야간)

- 과정설명
 - 기업 및 조직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분석·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정
- 교육대상
 - 정보검색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싶은 자
 - 연구조사, 도서관, 자료실, 정보센터, 기획, 마케팅 부서 등에서의 정보 담당자
 -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정보검색에 관심이 있는 자
- 기대효과
 - 정보 검색·분석·가공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 교육일정 및 기간
 - 일정: 5월 1일 ~ 6월 2일,
 - 10월 26일 ~ 11월 24일(월, 화, 목, 금 18:30~21:30)
 - 기간: 18일(1일 3시간), 총 54시간
- 교육비: 50만원/1인
- 교육내용

과 목(시간)	강 사
· 컴퓨터/통신일반(3)	한국정보검색위원회 위원 및 센터 전문인력으로 구성
· 데이터베이스 일반(3)	
· 정보검색 이론 및 기법(6)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15)	
· 인터넷 정보자원(15)	
· 정보자원 관리(6)	
· 프로젝트 실습(6)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TEL: 725-3751(내선 4번), FAX: 725-3750
URL HTTP://DPC.OR.KR